

2019 국별 진출전략

뉴질랜드



CONTENTS

2019 뉴질랜드 진출전략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5
나. 10억 그루 조림 정책(1 Billion Trees)	6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7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7
2. 시장 분석	11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1
나. 수출	12
다. 투자	13
라.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14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험의제	15
가. 교역	15
나. 투자	17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18
III. 진출전략	20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0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3. 한-뉴 경제 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24
첨부 1. 수출유망 품목	27
첨부 2. 수출유망 서비스	29
첨부 3.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30



I

시장 전망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뉴질랜드의 GDP 실질 성장률은 2016년 3.6%에서 2017년 3.0%로 하락한 이후 2019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전망

- 2019년 GDP 실질 성장률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9%를 기록할 전망
- 이민법 강화로 인해 이민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개인 소비가 둔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상승이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이를 상쇄할 것으로 예상
- 기업투자 회복, 관광업 성장, 국제 유제품 가격상승, 도로·철도 등 인프라 건설수요가 플러스 성장을 견인

□ 관광업의 특수와 인프라 건설 호황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속 전망

- 2023년 뉴질랜드 방문 관광객의 소비규모는 2016년 대비 52% 성장할 전망
 - 2018년 6월 기준 뉴질랜드 누적 방문 관광객 수는 379만 명을 기록, 2017년 4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최고치를 경신 중
 - 뉴질랜드의 호텔 가동률은 최근 10년 이래 최고치인 80%(한국 60%)를 기록할 정도로 역대 최고 호황기를 맞이함
 - 2021년 오클랜드에서 개최될 제36회 아메리카스 컵을 계기로 관광업 특수는 지속될 전망
- 주택, 교통, 호텔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착수
 - 뉴질랜드 정부는 2017년부터 10년 동안 전역에 10만 호 주택을 공급하는 Kiwibuild 프로젝트를 본격화
 - 오클랜드 인구 유입 증가로 오클랜드 공항 경전철 건설, 도심 경전철 및 고속도로 확충 프로젝트 등 교통인프라 건설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음
 -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신규 호텔 건설 프로젝트가 착수되면서 건설·건축업 호황기

□ 개인소비 둔화로 자동차를 비롯한 對뉴질랜드 수출감소 우려 확대

- 이민자 감소, 가계부채 증가는 개인소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이민법 강화조치로 인한 이민자 감소와 부동산 가격급등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는 가계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소비시장 위축*으로 연계될 전망
 - * 뉴질랜드 상업은행(ANZ)이 발표한 소비자 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는 2018년 9월 117.6포인트로 여전히 긍정적인 판단이 우세하지만, 2017년 9월(129.9포인트) 대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뉴질랜드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對뉴질랜드 수출품목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휘발유, 경유, 승용차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명목GDP	십억 달러	456	465	475	482	488	491
1인당 명목GDP	달러	199	173	182	195	198	208
실질성장률	%	36,785	37,285	38,331	39,464	44,643	46,630
실업률	%	2.8	3.2	3.6	3.0	2.9	2.9
소비자물가상승률	%	5.4	5.4	5.1	5.0	4.5	4.9
재정수지(GDP대비)	%	0.8	0.1	1.3	1.6	1.7	2.1
총수출	백만 달러	-1.1	0.3	0.9	0.7	-2.6	-3.0
(對韓 수출)	"	41,962	34,428	33,605	37,352	36,422	38,432
총수입	"	1,462	1,097	1,038	1,060	미확인	미확인
(對韓 수입)	"	41,000	35,786	35,534	38,743	38,341	40,132
무역수지	백만 달러	1,817	1,285	1,461	1,354	미확인	미확인
경상수지	"	961	-1,358	-1,929	-1,391	-2,664	미확인
환율(연평균)	현지국/US\$	-6,370	-5,501	-5,152	-5,563	-5,755	미확인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28	1.46	1.44	1.45	1.61	1.49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6,194	25,686	26,428	24,947	25,415	미확인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83,540	75,870	77,001	77,560	82,612	미확인

주: 2018년은 추정치, 2019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원: IMF, EIU, 뉴질랜드 통계청, IRD

2. 2019년 주요 이슈 및 전망

가. 사회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 주택 10만 호 건설 프로젝트

- 향후 10년간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 뉴질랜드 총리 Jacinda Ardern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 Kiwi Build라는 주택 10만 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
 - 2018년 9월부터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주택(60만 뉴질랜드달러)을 공급하기 시작. 18채 주택 공급에 6,0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여줌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시행으로 건설인력뿐만 아니라 건축자재 수요가 증가
 - 뉴질랜드 건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외 경력자 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 인력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언급
 - 2018년 하반기 한국의 對뉴질랜드 수출품목 중 산업기계 품목이 49%, 철강제품이 24% 증가하는 등 관련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인구 증가에 따른 도로 인프라 여건 개선

- 오클랜드 공항철도 및 시내 경전철 건설
 - 뉴질랜드 정부는 약 20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오클랜드 공항철도를 2028년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현재 노선계획을 수립 중
 - 오클랜드 시는 공항철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교통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리터당 11.5센트를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을 2018년 7월부터 적용
-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도로확충 사업이 시행되면서 건설업 호황이 지속될 전망
 - 주택 10만 호 건설 프로젝트로 오클랜드 주변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단지가 형성될 계획임. 이로 인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로 개선 프로젝트도 진행 중
 - 버스 시스템 개선, 자전거 도로 확충, 차량 공유 확대 등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

나. 10억 그루 조림 정책(1 Billion Trees)

□ 뉴질랜드 주요 산업은 낙농, 정육에 이어 조림산업이 세 번째 위치를 차지

- 뉴질랜드 조림산업은 2017년 54억 뉴질랜드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약 2만 4천여 명이 뉴질랜드 각 지역에서 조림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뉴질랜드는 2017년 기준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의 원목 수출국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 및 국제 목재 가격 회복으로 지속 성장 예상
- 침엽수 생산은 2003년에 비해 58% 증가하며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으며, 생산비용 증가로 목재패널, 펄프 및 종이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정부의 10억 그루 조림 정책(1 Billion Trees) 발표

- 뉴질랜드 1차 산업부(Ministry of Prime Industry)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림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발표
 - 정책의 주요 목표는 미래를 위한 투자와 함께 토질 향상, 국가 수입의 다양화, 환경 문제 해소, 기후 변화 예방, 수질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민간 상업조림지에 연간 5천만 그루씩을 심고 관리할 예정이며, 정부기관과 NGO 단체, 마오리개 발부와의 협업으로 공공 택지에 연간 5천만 그루 조성 예정
 - 조림산업 지원 펀드, 탄소 배출 억제 펀드, 탄소 거래권 및 Hill County 탄소 절감 펀드 등 총 15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여 직·간접적으로 조림산업 지원
 - 10억 그루 조림 정책에는 바이오 에너지 육성사업 또한 포함되어 있으며 2040년까지 바이오 에너지의 전력 비중을 현재 10%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할 계획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가. 정치 환경

□ 뉴질랜드 총리 Jacinda Ardern의 출산휴가

- 6월 출산 일정에 따라 10주간의 출산휴가 가져
 - 2017년 10월 집권에 성공한 37세의 뉴질랜드 여성 총리 Jacinda Ardern은 당선 3개월 후 임신 사실을 밝혔으며 2018년 6월 딸을 출산함
 - Jacinda Ardern은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있는 Clarke Gayford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총리직 수행기간 동안 아이를 돌볼 예정이라고 밝힘
 - 육아 휴직기간 동안 국회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진 않지만, 관련 회의 결과는 지속적으로 보고 받을 예정이며 주요 이슈는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힘
- 총리직 대행은 외교부 장관인 Winston Peters가 수행
 - Jacinda Ardern은 뉴질랜드 제일당 대표이자 외교부 장관인 Winton Peters에게 총리직 대행을 맡겼으며 전반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해냈다고 평가받음
 - 강경 좌파 성향인 Winston Peters의 대행직 수행과 관련하여 여론의 우려도 있었으나, 실제 업무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나. 경제 환경

□ 경제성장률

- 2018년 경제성장률은 2.9%로 전망되며 2018년에도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
 - 성장요인 : 관광객 증가, 건설 프로젝트 및 주택건설로 인한 건설경기 호황, 국제 우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낙농업 회복
 - 위협요인 : 정부의 이민법 강화로 인한 이민자 수 감소, 급등한 주택가격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등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위협요인으로 분석됨

□ 주요 경제지표 예측

- 국가 재정수익 증가, 국가 부채 및 실업률 감소로 안정적인 경제성장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 재정수익 : 2018년의 재정수익은 29억 뉴질랜드 달러의 수지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성장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국가 부채 :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2018년 22.8%로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9.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실업률 : 경제성장세에 따른 신규 직업 창출로 실업률은 2018년 말 4.9%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2020년 4.3%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수입/수출 : 이민자, 관광객 수요 증가 및 소고기, 양고기 수출증가로 2018년 대비 수입은 4.0%, 수출은 3.7% 성장 예상
- 환율 및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뉴질랜드의 수출 및 수입에 미미한 영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
 - 환율 :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수출위기로 2017년 6월 대비 15% 정도 하락한 0.64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ANZ 보고서에 따르면 연내 0.67 수준으로 마감할 것으로 예측
 - 금리 : 2018년 6월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전 분기와 동일하게 기준금리 1.75%를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 추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힘.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및 뉴질랜드 달러 저평가로 금리 인상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대외교역

- 2018년 상반기 수출입은 2017년에 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수출 8.05%, 수입 13.78% 증가
 - 목재(20.5%↑), 알루미늄괴(14.3%↑), 버터류(8.6%↑) 등 수출 증가세
 - 트랙터(70.5%↑), 석유화학(56.3%↑), 불도저(30.6%↑) 수입 큰 폭 증가

[역대 집권당뉴질랜드의 연도별 수출입 실적]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5	2016	2017	2018(상반기)
수출 (증감률)	34,364 (-17.43)	33,756 (-1.76)	38,075 (12.80)	20,538 (8.05)
수입 (증감률)	36,571 (-13.96)	36,079 (-1.31)	38,341 (11.43)	19,999 (13.78)
교역량 (증감률)	70,935 (-15.68)	69,835 (-1.51)	76,417 (12.11)	40,538 (10.80)
무역수지	-2,199	-2,323	-266	538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 2019년 뉴질랜드 소매시장 예측

- 2018년 2/4분기 소매시장은 전 분기 대비 1.3% 성장하였으며 2019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 그 증가세는 약해질 전망
- 뉴질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CPI는 2017년 1/4분기 1,000포인트를 기록한 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2/4분기 현재 1,015포인트로 조사됨
- 뉴질랜드 달러 환율가치 하락, 고유가 환경은 소매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소매시장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

□ 2019년 뉴질랜드 도매시장 예측

- 2018년 2/4분기 도매시장은 전 분기 대비 2.6%의 증가율을 기록
- 생필품, 주류 및 담배 부분이 2.3억 뉴질랜드 달러로 도매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3%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음
- 자동차 및 부품 부분이 3.9% 성장하였으며 뉴질랜드 인구 증가로 인한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2019년에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다. 산업 환경

□ 1차 산업

- 2018년 1차 산업 11.8% 증가 예측
- 국제 유제품 시장의 우유·버터 제품 가격회복으로 2018년 유제품 수출이 전년 대비 13.6%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차 산업 성장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국제 양고기 가격회복으로 정육 및 양모 시장은 2018년 12.4%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2018년 최고치 기록 이후 2020년까지 연간 2~3% 성장 예측
- 2018년 임업은 중국의 주택시장 성장에 따른 수요증가와 장기간 조림산업 진흥책으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할 전망

□ 2차 산업

- 제조업 성장은 둔화되어 정체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
- BNZ에서 발표한 PMI(Performance of Manufacturing Index)는 2018년 8월 52포인트로 2017년 8월 57.8포인트에 비해 하락
- 최저임금 증가로 고용비용이 증가하면서 고용부분의 지표가 48.7포인트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그 외 생산, 재고 등 모든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타남

□ 3차 산업

- 2018년 6월 회계연도 기준 연간 뉴질랜드 관광객 방문 378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 갱신 중
 - 중국의 관광수요 증가, 미국의 베이비부머 은퇴자 관광수요 증가, 뉴질랜드 달러 약세 등으로 인해 2019년에도 꾸준한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
 - 해외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전반적인 서비스 시장규모 증가
 - 2021년 제36회 아메리카스컵이 오클랜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라. 정책·규제 환경

□ 기업활동, 해외투자 독려를 위한 규제 최소화

- 뉴질랜드는 1980년대까지 규제가 심한 국가 중 하나였으나, 1984년부터 기업활동 및 해외투자 독려를 위한 정부 주도의 규제 최소화 정책을 시행
 - 2018년 세계은행에서 선정한 기업하기 쉬운 나라 1위 선정
 - 2018년 미 Forbes지에서 선정한 'Best Country for Business' 2위 선정
 - 2017년 미 Transparency International 선정 국가청렴도 1위 선정
 - 2015년 미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 3위 기록

□ 해외투자자 주택구매 제한

- 최근 급증한 주택가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외투자자의 주택구매 제한 법안이 2018년 8월 최종 통과됨
 - 노동당 정부는 주택가격 급증은 해외투자자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7년 12월 해외투자자의 주택구매 제한 법안 상정
 - 야당인 국민당은 해외국적의 주택구매자는 전체 구매자의 3% 이내 수준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에 반대의견을 발표함
 - 해당 법안은 수차례 수정을 거치며 2018년 8월 최종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10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행될 예정임
 - 해외국적자 중 1년 이상 영주권자, FTA 조약에 따른 싱가포르, 호주 국적자는 해당 규제에서 제외되며 이 외의 해외국적자는 주택구매 시 뉴질랜드 Overseas Investment Office의 승인이 필요하게 됨

□ ICT, 하이테크, R&D 분야 지원 강화

- 뉴질랜드 정부는 ICT, 하이테크, R&D 분야 정책 및 지원을 주관하는 Callaghan Innovation 설립
 - 기업혁신고용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산하에 Callaghan Innovation을 설립하면서 각 부처별 분산된 정책 및 지원기능을 통합
 - 2017년 발표한 예산안에서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 약 2억 6천만 뉴질랜드달러를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약 7,460만 뉴질랜드달러를 Callaghan Innovation에 책정하여 관련 분야 연구 및 창업 지원
 - Callaghan Innovation은 R&D, 혁신 이벤트, 혁신 프로그램, 전문가 조언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6~2017년 동안 2,473개 기업 성장 지원
 - Callaghan Innovation은 민간기업 지원기관을 Accelerator, Founder Incubator, Technology Incubator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민관 유기적으로 창업 지원 및 ICT, 하이테크, R&D 기업 활성화를 지원

2. 시장 분석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다양한 시장을 바탕으로 한 테스트베드 최적지

- 적은 기회비용과 위험요소를 바탕으로 선진국 진출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것이 가능한 시장
 - 196개국의 213개 민족이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
 - 다양한 국가 및 민족 출신을 대상으로 시장성 테스트 가능
- 영어권 국가, 국제표준 적용을 장점으로 다국적기업의 진출 교두보 활용
 -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며 영국의 기본 문화예절, 상거래 관행을 따르고 있어 진출장벽이 낮음
 - 화이자를 비롯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뉴질랜드를 테스트베드로 활용(다양한 인종, 적은 인구, 수준 높은 의료 시스템, 영어권 국가, 국제표준 등이 이유)
- 기업설립 및 해외투자 용이
 - 2018년 세계은행에서 선정한 기업하기 쉬운 나라 1위로 선정되는 등 기업설립 및 운영 용이함
 - 2018년 세계은행 선정 소규모 투자 보호제도 2위 국가로 기업 투자가 용이하고 안전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혁신기술 친화 국가

- 뉴질랜드는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및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기술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뉴질랜드 중앙정부는 2017년 Callaghan Innovation을 설립하여 기업의 R&D 분야 및 혁신기술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 Callaghan Innovation은 민간기업 육성기업과 협업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473개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였음
- 혁신기술 친화 환경을 바탕으로 테슬라의 가정용 배터리, 페이스북 메신저 기능, 도미노 피자 드론 배달 등 다양한 혁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하고 있음

나. 수출

□ 뉴질랜드 수출현황

- 높은 중국 수요를 바탕으로 2018년 상반기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하였으며 연말 기준 8.5% 성장률을 보여줄 전망
-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은 낙농업품, 육류, 목재 제품이며 2018년 상반기 기준 상위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49%를 차지하고 있음

[뉴질랜드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2016년	2017년	2018(상반기)	2018/2017(상반기)
	전체	33,755	38,075	20,538	8.05
1	낙농업품	7,996	10,183	5,151	3.22
2	육류	4,087	4,692	3,103	12.40
3	목재	2,867	3,296	1,726	15.75
4	과일류	1,911	1,897	1,336	13.76
5	음료	1,291	1,290	655	3.72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 뉴질랜드 수출 점유율 상위국 동향

- 뉴질랜드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 2015년까지 뉴질랜드의 수출 1위 국가는 호주였으나 중국 시장 성장으로 2016년부터 점유율 19.47%로 호주를 제친 후 지속 성장하여 2018년 상반기 기준 21.74%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음

○ 뉴질랜드-중국 FTA 2차 개정안

- 2016년 뉴질랜드 존키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기존 FTA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하였으며 교역규모를 2018년 270억 뉴질랜드달러에서 2020년 300억 뉴질랜드달러 규모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움

○ 뉴질랜드의 對한국 수출

- 2018년 상반기 뉴질랜드의 對한국 수출 점유율은 3.11%로 5위를 기록
- 주된 수출품목은 승용차, 휘발유/경유, 건설 중장비임

【 뉴질랜드 주요 수출국가 】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국가	2016		2017		2018(상반기)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수출금액	비중
1	중국	6,573	19.47	8,577	22.53	4,465	21.74
2	호주	5,778	17.12	6,262	16.45	3,120	15.19
3	미국	3,680	10.90	3,782	9.93	2,124	10.35
4	일본	2,074	6.14	2,277	5.98	1,277	6.22
5	한국	1,038	3.08	1,060	2.78	693	3.11
6	대만	756	2.24	801	2.11	583	2.84
7	싱가포르	776	2.30	807	2.12	442	2.15
8	홍콩	554	1.64	780	2.05	437	2.13
9	네덜란드	560	1.66	620	1.63	394	1.92
10	말레이시아	553	1.64	722	1.90	389	1.90

자료원: 뉴질랜드 통계청

다. 투자

□ 뉴질랜드 외국인 투자동향

- 2018년 3월 기준 뉴질랜드의 해외투자는 2,426억 뉴질랜드달러 기록
 - 주요 투자국은 미국, 호주, 영국 순이며 각각 657억, 617억, 185억 뉴질랜드 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60.1%를 차지
 - 일본은 2017년에 이어 동일하게 네 번째 투자국가로 자리를 지켰으며 139억 뉴질랜드달러 투자 기록
- 2018년 3월 기준 해외 국가의 뉴질랜드 투자는 3,989억 뉴질랜드달러 기록
 - 주요 뉴질랜드 투자국가는 호주, 영국, 미국 순이며 각각 1,178억, 655억, 410억 뉴질랜드달러로 전체 투자금액의 56.2% 차지
 - 홍콩은 2017년에 이어 동일하게 네 번째 투자국가로 기록되었으며 주요 3개 국가 투자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인 144억 뉴질랜드달러 기록

□ 경쟁국(중국, 일본) 진출동향

- 2008년 FTA를 체결한 중국이 그간 무역에 비해 다소 미미한 투자를 확대
 - 최근 낙농장, 유제품 공장과 같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투자 활성화
 - 현지 기업 M&A를 통한 투자진출 가속화
- 일본의 경우 1980년대부터 뉴질랜드 식품제조사 인수를 통한 투자진출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경쟁국 주요 기업 뉴질랜드 투자진출 현황]

(단위: 억 뉴질랜드달러)

기업	진출현황	투자액
Shanghai Pengxin(중)	뉴질랜드 내 12,000ha 규모 낙농장 인수	3
Haier(중)	뉴질랜드 유일의 가전사 Fisher&Paykel 인수	7
Yili Industrial(중)	뉴질랜드 남섬 티마루 지역에 대형 유제품 제조공장 설립	4
Fu Wah(중)	오클랜드 Park Hyatt 호텔 신축	2
Asahi(일)	음료제조사 Flavoured Beverages Group 인수 음료제조사 Charlie's Group 인수	15 13
Suntory(일)	음료제조사 Danone Holdings 인수	기밀
Japan Post(일)	호주-뉴질랜드 물류기업 Toll Holdings 인수	70
SMA(중)	뉴 최대 육류기업 Silver Fern Farms 지분 50% 인수	3

라. 대규모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오클랜드 공항철도 건설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뉴질랜드 교통부 소속 Auckland Transport Alignment Project(ATAP)는 오클랜드 도심과 공항을 잇는 공항철도 건설계획을 2018년 발표함
 - 공항철도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지속될 예정이며 경전철 모델을 기초로 하여 오클랜드 남서부 지역을 잇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뉴질랜드 교통부(NZ Transport Agency)는 2018년 말 주요 파트너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크고 작은 입찰 진행 예정
- 프로젝트 담당기관 정보
 - 프로젝트 담당기관 : NZ Transport Agency
 - 홈페이지 : www.nzta.govt.nz/roads-and-rail/rapid-transit/auckland-light-rail
 - 주요 연락처 : lightrail@nzta.govt.nz

□ 20Connect 프로젝트

-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오클랜드 시내와 공항을 잇는 20A 고속도로와 20B 고속도로를 개선하여 공항에서 시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구축
 - 오클랜드 시의 인구증가로 대중교통, 물류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인 개선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개선계획을 세우고 있음
 - 뉴질랜드 교통부는 2018년 말을 목표로 주요 프로젝트 계획안을 준비 중
- 프로젝트 담당기관 정보
 - 프로젝트 담당기관 : NZ Transport Agency
 - 홈페이지 : www.nzta.govt.nz/projects/southwest-gateway/20connect/

3. 한국과의 경제교류 및 주요 경협역제

가. 교역

□ 對뉴질랜드 수출동향

- 연도별 對뉴질랜드 수출
 - 2015년부터 한 자릿수의 수출성장세를 보였으나 주택, 교통 개선 프로젝트로 인한 석유, 기계, 철강제품 수요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47%의 높은 수출성장을 보임

[연도별 對뉴질랜드 수출]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상반기)	2017	2016	2015
수출금액	970	1,306	1,305	1,263
전년 대비	46.7	0.1	3.4	-2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對뉴질랜드 수출
 - 광물성 연료가 97.1% 증가하여 가장 큰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2017년 싱가포르 원유 가격경쟁으로 평소 대비 적은 수출실적으로 인한 기저효과 및 뉴질랜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기계제품이 47.7%, 철강제품이 26.7% 성장하였으며 이는 뉴질랜드에서 진행되는 주택 건설,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로 인한 수요증가가 원인임

[2018년 상반기 품목별 對뉴질랜드 수출]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광물성연료	516	97.1
2	수송기계	166	5.5
3	산업기계	63	47.7
4	철강제품	41	26.7
5	석유화학제품	39	12.9
6	전자부품	33	5.8
7	정밀화학제품	10	14.6
8	비철금속제품	8	-4.3
9	가정용전자제품	8	-2.0
10	산업용전자제품	7	365.4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對뉴질랜드 수입동향

○ 연도별 對뉴질랜드 수입

- 2017년부터 對뉴질랜드 수입증가세로 돌아섰으며 10%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 치즈, 버터 등 국내 유제품 소비 증가 및 수입 과일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對뉴질랜드 수입금액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연도별 對뉴질랜드 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8(상반기)	2017	2016	2015
수입금액	699	1,214	1,098	1,225
전년 대비	9.6	10.6	-10.3	-19.7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품목별 對뉴질랜드 수입

- 수입품목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제품 수입이 전년 대비 33.6%로 큰 폭 성장하였으며 이는 국내 유제품 소비가 2010년 320만 톤에서 2017년 410만 톤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키위, 아보카도 등 수입 과일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과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음

[2018년 상반기 품목별 對뉴질랜드 수입]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품목	금액	비중(%)
1	목재	169	-6.5
2	낙농품	89	33.6
3	식용육	64	6.2
4	각종 조제식품류	58	22.2
5	알루미늄	44	-24.9
6	과실, 견과류	42	28.7
7	광물성 연료	34	28.7
8	목재펠프	31	45.0
9	전자기기	30	30.9
10	기타 동물성 생산품	29	67.0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나. 투자

□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투자

○ 對뉴질랜드 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對뉴질랜드 투자는 1980년대 이전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2000년대 초반 이민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음
- 對뉴질랜드 건당 신고금액이 평균 90만 달러로 기업의 해외진출보다는 이민형, 생활형 투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음

[연도별 對뉴질랜드 투자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1980 ~ 2009	450	327	192
2010	21	15	12
2011	22	49	12
2012	16	23	11
2013	28	17	42
2014	19	79	67
2015	20	9	9
2016	18	9	8
2017	3	0.3	0.8
2018(하반기)	9	7	7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별 직접투자 동향

- 뉴질랜드 산업 중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임업, 식품 분야의 투자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식품 제조업 분야에서는 오투기가 오클랜드 남쪽 지역에 공장을 짓고 1997년부터 사업을 이어가고 있음
- 한솔, 동화산업 등이 뉴질랜드 남섬 및 북섬에 조림사업 진행 중
- 2015년 12월, 현대로템이 웰링턴시 광역철도 사업권을 획득해 15년간 웰링턴시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음

[산업별 뉴질랜드 투자현황]

(단위: 건, 천 달러)

구분	2015		2016		2017		2018(상반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림어업	4	704	3	2,288	1	4	2	1,730
광업	-	-	-	-	-	-	-	-
제조업	-	-	1	3,276	1	22	-	-
도소매업	16	8,553	8	2,567	1	250	1	0
운수업	-	-	2	170	-	-	-	-
숙박 음식업	-	-	1	365	-	-	-	-
부동산업	-	-	1	33	-	-	-	-
정보통신업	-	-	-	-	-	-	1	277
금융 및 보험업	-	-	-	-	-	-	1	1
기타 및 서비스업	-	-	1	0	-	-	-	-
합계	20	9,257	18	8,845	3	276	5	2,00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 한국 우수인력의 뉴질랜드 진출을 위한 비자제도 개편

○ 뉴질랜드 이민법 강화

- 2017년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이민법을 개정하여 연간 7만 명 수준의 이민자를 2018년부터 연간 5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함
- 개정된 이민법에서는 기존 140점에서 160점으로 기준점수를 높이고 일정 수준이상의 연봉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등 영주권 신청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 강화된 이민법으로 한국인의 2017년 영주권 승인은 551건에서 2018년 132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교민업체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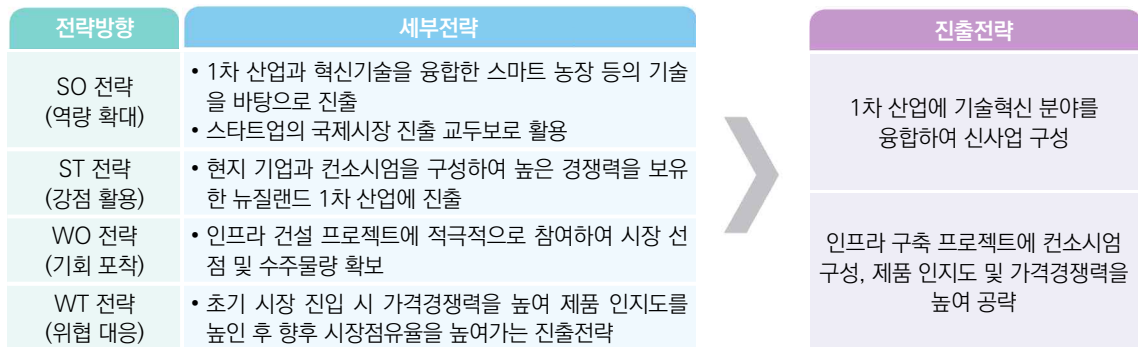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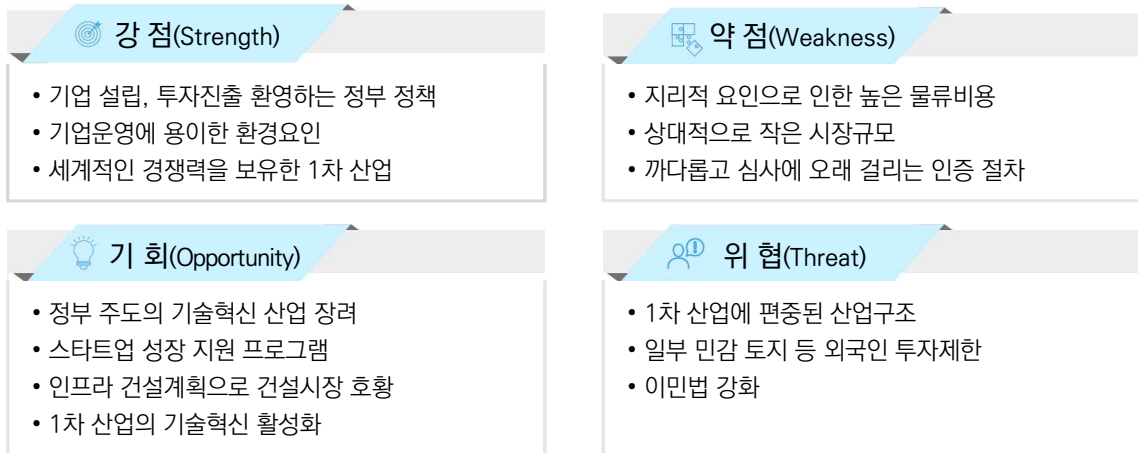
○ 한국인 특수 워크비자

- 2015년 FTA 협정을 계기로 우리 국민 중 태권도 강사, 여행 가이드 등 10개 직종에 한해 연간 200명까지 특수 워크비자를 발급하는 제도가 시행됨
- 뉴질랜드 이민성의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비자 발급 가능하나 향후 다른 비자로 전환이 제한되어 있어 2017년 기준 누적 신청자 수는 17명에 불과함
- 현재 뉴질랜드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 등의 직종에도 기회를 부여하며, 향후 다른 비자로 전환이 가능하여 우리 국민의 뉴질랜드 진출 및 뉴질랜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 협정이 필요함

III 진출전략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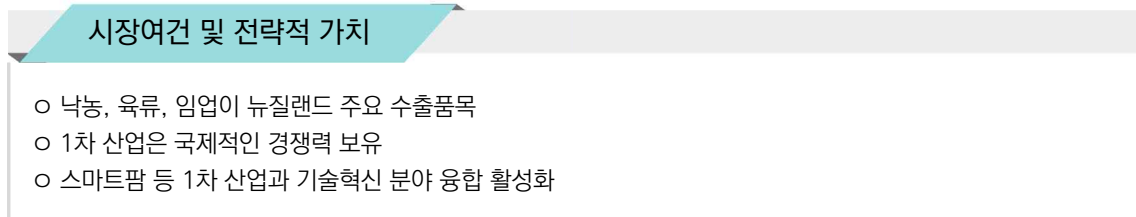
[뉴질랜드 지역 SWOT 분석]



2. 주요 산업·이슈별 진출전략



가. 스마트팜 시장 진출



□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뉴질랜드 1차 산업과 기술혁신 분야 융합

- 1차 산업이 발달한 뉴질랜드
 -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1차 산업 발달

- 뉴질랜드 1차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별도로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
- 2018년 상반기 기준 뉴질랜드의 낙농, 육류, 임업 수출은 수출금액 기준 각각 25%, 15%, 8%로 수출품목 1~3위를 차지하고 있음
- 스마트팜에 대한 높은 관심
 - 오클랜드대학교 등 뉴질랜드의 대학 및 혁신기술 기업에서는 대규모 농장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음
 - 드론을 활용한 목초지 및 농장 관리, GPS 및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가축 건강관리 솔루션 등 산학 연계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음
 - 뉴질랜드 1차 산업부는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64억 뉴질랜드달러를 투자하여 1차 산업의 미래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춤
- 우리 기업의 스마트팜 시장 진출
 - 우리 기업이 보유한 IT, 로봇, 드론 기술을 농장 관리 솔루션에 접목하여 스마트팜 시장에 진출 가능
 -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1차 산업군으로 시장 진출 성공 시 향후 세계시장으로 진입이 용이함
 - 매년 6월 개최되는 남반구 최대 농업 박람회인 Fieldays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솔루션을 선보이고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뉴질랜드의 스마트팜 기업과 기술 교류 및 협력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나. 스타트업 기업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기업운영에 유리한 환경 보유
- 기술혁신 분야 양성을 위한 뉴질랜드 정부의 노력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 가능

□ 뉴질랜드 정부의 ICT, 하이테크, R&D 분야 지원 강화 정책

- 뉴질랜드 정부는 ICT, 하이테크, R&D 분야 정책 및 지원을 주관하는 Callaghan Innovation을 설립하여 2017년 약 2억 6천만 뉴질랜드달러 예산 편성
 - Callaghan Innovation은 R&D, 혁신 이벤트, 혁신 프로그램, 전문가 조언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2016~2017년 동안 2,473개 기업 성장 지원

- Callaghan Innovation은 민간기업 지원기관을 Accelerator, Founder Incubator, Technology Incubator 3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민관 유기적으로 창업 지원 및 ICT, 하이테크, R&D 기업 활성화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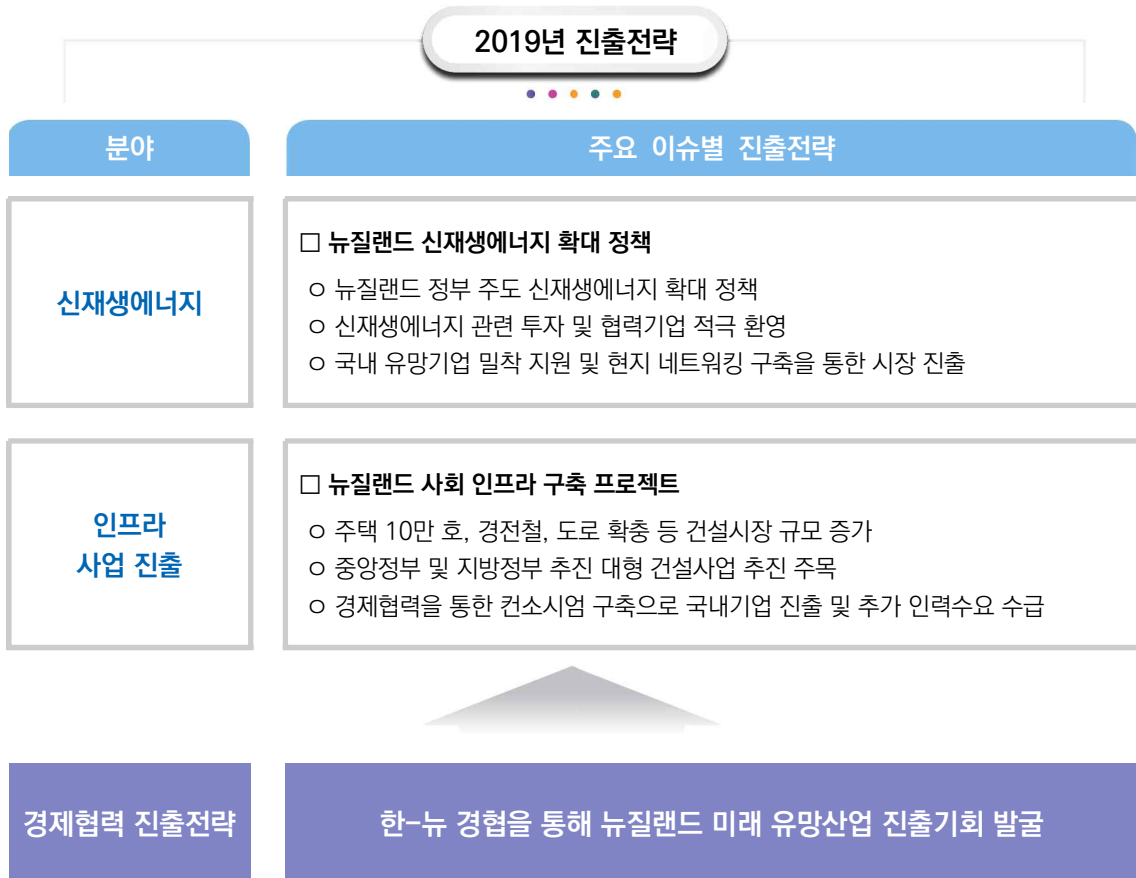
○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보유한 뉴질랜드

- 기업 설립 및 운영이 간편하고 타 국가에 비해 간단한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2018년 세계은행에서 선정한 기업하기 쉬운 나라 1위 선정
- 2018년 미 Forbes지에서 선정한 'Best Country for Business' 2위 선정
- 2017년 미 Transparency International 선정 국가청렴도 1위 선정
- 2015년 미 Heritage Foundation에서 발표한 경제자유지수에서 세계 3위 기록

○ 스타트업 기업의 뉴질랜드 진출방안

- 사업 구상 및 현지 시장조사를 위해 최대 1년간 체류 허가를 제공하는 Specific Purpose Work 비자를 신청하여 초기 시장 조사 수행
- Callaghan Innovation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기업 설립 및 활동 지속
- 현지업체와 협업하거나 Entrepreneur Visa를 신청하여 장기 워크비자를 발급받은 후 향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영주권 신청 및 기업 확장 지속

3. 한-뉴 경제 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가. 신재생에너지



□ 뉴질랜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요

- 뉴질랜드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 자연환경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뉴질랜드는 신재생에너지에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상당 부분의 전력수요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

- 뉴질랜드는 2017년 기준 OECD 국가 중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광 분야는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설치 비용 지원 등의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뉴질랜드는 2015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81%이며 이를 2035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있음
- 풍력 발전 관련 기술 발달로 인해 저비용의 기자재들이 수입되면서 향후 20년 내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투자자를 적극 환영하는 바이오 연료 시장
 - 뉴질랜드의 Bioenergy Association은 우드칩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 개발이 유망한 분야이며 캐나다와 함께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
 - NZTE(New Zealand Trade & Enterprise)는 바이오 연료 개발에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기술 협력 및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힘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태양 전지판 수요 증가
 - 주택 및 상업용 태양 전지판 설치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여줄 것으로 예측
 - 우리 기업은 현지 시장분석, 정부 지원 방향, 유통구조, 현지 신재생 관련 협회 등의 환경을 분석한 후 관련 전시회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풍력 발전 터빈 수요 증가
 - 기술 발달에 따라 풍력 설비비용이 낮아지면서 높은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기술 제휴 등을 통해 추가 시장 발굴 가능한 유망품목임

나. 인프라 사업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10만 호 주택 건설, 공항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 진행 중
- 건설시장 활성화에 따라 철강, 기계제품의 수요 증가 예상
- 파트너십, 컨소시엄 등으로 현지 시장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 필요

□ 주택 건설 및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 향후 10년간 1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 뉴질랜드 총리 Jacinda Ardern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공약 이행을 위해 Kiwi Build라는 주택 10만 호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
 - 2018년 9월부터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주택(60만 뉴질랜드달러)을 공급하기 시작함. 18채 주택 공급에 6,0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보여줌
- 오클랜드 공항철도 건설 및 도로 확충
 - 뉴질랜드 정부는 약 20억 뉴질랜드달러 규모의 오클랜드 공항철도를 2028년까지 건설 목표를 제시하며 현재 노선계획을 수립 중
 - 오클랜드 인구 증가에 맞추어 버스 시스템 개선, 자전거 도로 확충, 차량 공유 확대 등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중

□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시행으로 건설인력 및 건축자재 수요 증가
 - 시장 인지도가 낮은 우리 기업이 주요 건설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진출보다는 현지 건설사와의 접촉을 통해 파트너 개념으로 진입하는 게 효율적임
 - 프로젝트 입찰 공고 시 기업 간 컨소시엄을 맺어 각 전문분야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음
-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시행으로 건설인력 및 건축자재 수요 증가
 - 뉴질랜드 건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외 경력자 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한국 인력의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언급
 - 건설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철강 및 기계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가격경쟁력 높은 중국제품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

품목명 1	HS Code	8708.30	수입관세율(%)	2017년 이후 0%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수입액('17/US\$백만)	39.93	대한수입액('17/US\$백만)	0.65
	선정사유	- 뉴질랜드 내 중고차량의 비율이 높고 노후화가 심해 소모성 자동차부품의 수요 증대 -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 상승추세로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수요 인지도 및 수요 증가 - 시장 진입장벽이 기타 부품에 비해 낮고 가격이 민감한 품목으로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이 국내제품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시장동향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자동차 소모품으로 수요가 많고 경쟁도 심한 품목. 특히 시장지배 브랜드가 없어 미세한 가격 차이가 구매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경쟁동향	자동차부품 유통업체들이 중국에서 저가형 제품을 OEM 방식으로 수입해 유통하고 있으며, 보쉬 등 고급 브랜드 제품은 유럽 또는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음		
	진출방안	현지 담당자는 높은 품질의 고급형 제품과 저가형의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저가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고급화 전략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함		
품목명 2	HS Code	8507.20	수입관세율(%)	0%
자동차 배터리	수입액('17/US\$백만)	30.71	대한수입액('17/US\$백만)	1.69
	선정사유	- 한국산 자동차 수입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부품 및 배터리 등의 수요가 늘어남에 추세임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시장동향	중국의 저가상품이 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331% 성장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음		
	경쟁동향	뉴질랜드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용 배터리는 주로 OEM 방식으로 공급돼 유통되고 있어 한국산이 많이 수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며, 품질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아 가격 탄력성이 매우 높은 상품임		
	진출방안	뉴질랜드인들은 높은 인건비 등의 이유로 DIY가 활성화돼 있으며, 비교적 교체가 간단한 자동차 배터리 역시 직접 소매점에서 구매해 교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품목명 3	HS Code	1902.30	수입관세율(%)	0%
인스턴트 라면	수입액('17/US\$백만)	37.38		
	선정사유	- 뉴질랜드 내 아시아 인구의 증가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 - 인스턴트 라면류는 현지인들도 즐기는 음식문화로 자리잡은 상태이며, FTA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시장동향	뉴질랜드 주요 슈퍼마켓에서 인스턴트 라면 분류는 파스타 종류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인스턴트 라면이 하나의 주류식품 코너로 자리잡고 있음		
	경쟁동향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브랜드 제품들이 현지 제품과 같이 자리를 잡고 유통되고 있으며, 현지 입맛에 맞는 다양한 제품이 새로이 선보이고 있음		

	진출방안	SNS상에서 매운 한국라면 먹기 도전 등의 열풍이 불면서 한국산 라면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본 인지도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알리는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품목명 4	HS Code	8431.41	수입관세율(%)	0%
중장비 부착품	수입액('17/US\$백만)	8.82	대한수입액('17/US\$백만)	0.43
	선정사유	-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 계획을 바탕으로한 오클랜드 도로 확충, 주택건설 등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기계 수요 증가 -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품목으로 관세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기대		
	시장동향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중장비 부착품 수입은 2017년 기준 88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		
	경쟁동향	중국, 인도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진출방안	한국산 중장비는 현대, 두산 등의 대기업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어 한국산 중장비에 대한 인식은 좋은 편임. 다만, 현지 유통업체들이 중장비 부착품을 자사 브랜드를 부착해 판매하려는 경향이 있어 한국업체에 OEM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이 점을 인지하고 자체 브랜드로 장기적인 시장접근을 할 것인지 OEM으로 적은 비용으로 시장 진입할 것인지에 따른 진출방안을 고려해야 함		
품목명 5	HS Code	7326.19	수입관세율(%)	- 2017년: 2.9% - 2018년: 2.1% - 2019년: 1.4% - 2020년: 0.7% - 2021년: 0%
철강 제품	수입액('17/US\$백만)	12.43	대한수입액('17/US\$백만)	0.16
	선정사유	-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프로젝트 계획을 바탕으로한 오클랜드 도로 확충, 주택건설 등 건설경기 호황으로 관련 수요 증가 - 관세철폐가 7년에 걸쳐 진행돼 단기간의 수출 증가요인은 낮으나 철강제품의 꾸준한 수요로 지속적인 성장 전망		
	시장동향	높은 수요를 바탕으로 뉴질랜드 철강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2017년 기준 1,243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83% 증가		
	경쟁동향	중국제품이 6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대만, 말레이시아 제품이 인증을 마치고 수입되고 있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임		
	진출방안	뉴질랜드 시장에서 한국산 철강제품은 매우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격적인 면에서 일본산 철강제품보다도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 접근이 필요함. FTA 이후 7년간 관세가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산 철강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므로 시장 선점이 중요		

ICT 서비스	선정사유	뉴질랜드 정부는 7천만 뉴질랜드달러의 예산을 편성하고 Callaghan Innovation을 설립하여 ICT 분야 활성화 방안을 구성함
	시장동향	2016년 이래로 2,473개의 기업이 Callaghan Innovation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 시장을 넓혀가고 있음
	경쟁동향	ICT 직종은 뉴질랜드 이민이 용이한 장기부족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연간 약 3,410명 이상의 관련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진출방안	Callaghan Innovation의 스타트업 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가 비자를 발급받아 진출하는 방법 또는 관련 회사에 취직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진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물류	선정사유	제조업이 취약하고 1차 산업이 발달하여 수출 및 수입 의존도가 높아 물류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시장동향	2017년 전체 교역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였으며, 물류산업은 GDP의 약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경쟁동향	지역적 특색으로 선박물류가 발달해 있으며 Main Freight 등 국제적 선박기업이 주요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선박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3차 벤더 또한 발달해 있음
	진출방안	국내업체는 한국-뉴질랜드 간 물류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아시아권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함
건설	선정사유	뉴질랜드 정부는 주택 10만 호 건설, 오클랜드 공항 경전철 건설, 각종 도로 확충사업 등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발표함
	시장동향	중앙정부의 10억 뉴질랜드달러 예산 편성 및 오클랜드시의 유류세 추가 개정 등으로 예산확보가 진행 중이며 각종 건설, 건축 프로젝트에 일본 등 다수의 세계기업이 입찰하고 있음
	경쟁동향	플레처 건설 등 뉴질랜드 기업이 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완공한 워터뷰 터널 프로젝트에는 일본의 오바야시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였음
	진출방안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 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이 중요하며 그 외에도 2차, 3차 벤더의 역할로 인지도를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



첨부 3

2019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전시회 캘린더

□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뉴질랜드 보트쇼	2019. 5. 17	
뉴질랜드 농업박람회(Fieldays)	2019. 6. 13	
오클랜드 식품전(Foodshow)	2019. 7. 25	

담당자

오클랜드 무역관 배선희

Tel +64-9-373-5792

직책 과장

Email seon@kotra.or.kr

2019 국별 진출전략

뉴질랜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